(9) 송익필의 학술적 공헌

강민우: 선생님이 옥중에 있을 때 한평이 찾아갔는데, 역시 단정히 앉아 있었으며 말과 얼굴빛이 태연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단정하고 바른 것인지 알 수 있으며, 옥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참된 유학자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조헌은 선생님의 억울함을 구하는 상소문에서 "송익필은 비록 송사련의 아들이지만 노년에도 독서에 힘써 학문이 깊고 경서에 밝았으며, 언행이 바르고 곧아 제 아비의 허물을 덮을 만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합니다.

송익필: 우리 삼현은 학문적·정치적으로 서로 간의 이해가 깊고 의리가 두텁습니다. 아끼고 걱정하는 정도가 보통 사람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이이가 동인 측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저와 성혼이 적극 나서서 이이를 변호합니다. 성혼이 이이를 구하려다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이이와 제가 성혼을 구해냅니다. 제가 천민이 되어 더할 수 없는 수모와 곤란을 겪고 전국으로 떠돌아다닐 때 성혼과 정철은 제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선합니다.

강민우: 이들은 모두 당대의 대유학자이지만 제각기 성품이 달랐다지요.

송익필: 세속의 영달에 뜻을 끊은 채 오직 수도자로서 큰 포부를 지녔던 송익필, 온화하고 모나지 않은 성품으로 원숙한 경륜을 보여주었던 이이, 다정다감한 천성으로 자연과 멋을 알았던 정철, 산림처사로 자처하고 선비의 본분으로 알았던 성혼의 기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구봉집』 권2)

강민우: 삼현은 일찍이 우정을 맺고 절차탁마(切磋琢磨)하였다지요. '절차탁마'는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송익필: 우리는 언제나 간곡하게 묻고 대답하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견해나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며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보기 어려운 다정한 사이지만, 학문과 출처를 놓고는 "인(仁)이야말로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으로 교유합니다.

강민우: 삼현의 학문 성향은 어떠했나요. 성혼과 송익필 선생이 원칙주의를 취하여 보수적 성향을 띤 데 비해, 이이는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지요.

송익필: 이이의 학문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율적입니다. 『순언(醇言)』·「학부통변발(學蔀通辨跋)」·「극기복례설(克己復禮說)」 등에 보이는 것처럼, 노장과 양명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며 기학과 불교 등에도 널리 통합니다. 분석에서도 천재적 재질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 성혼은 아버지 성수침의 학풍과 이황의 함양을 중시하는 학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양 공부를 소홀히 하는 이이의 학문적 태도를 못마땅해하고, 새로운 견해를 내세우기에 앞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견해를 고집하여 너그러움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성

혼이 이이를 인정하면서도 비판한 것은 그만큼 만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참된 유학자의 조건으로 여기는 이이가 학술 활동과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성혼의 비판이 강도를 더해갑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이이와 성혼의 학술 활동을 보면서 주로 제삼자의 위치에서 조정자 구실을 하였겠군요.

송익필: 이이와 성혼 모두 저에게 판단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의 학문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한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의 경세에 대한 관점은 이이 쪽에 가깝지만, 출세의 길이 막혀 성혼처럼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민우: 성혼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면 선생님께 숨김없이 밝혔다지요.

송익필: 저와 성혼의 관계를 보면, 이이와 성혼 또는 이이와 저 사이에 비해 학문적으로나 출처에서 큰 이견이 없으며 호흡이 잘 맞는 편입니다. 이이와 성혼은 모두 저에게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저는 중립적 관점을 지키면서 이들 이견의 조정에 힘씁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세 개의 솥발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설 수 없는 형국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이와 성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적었습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경세에 대한 식견이 높았지만,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겠군요.

송익필: 그래서 출처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을 일이 적었습니다. '출(出)'은 세상에 나아가 벼슬길에 오른다는 뜻이고, '처(處)'는 집에 물러앉아서 벼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출처'는 세상에 나아가 벼슬길에 오르든지, 아니면 물러나 집에 은거하든지 하는 진퇴를 가리는 말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이이와 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천의 측면에서는 성혼과 통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이가 궁리 공부에, 성혼이 함양 공부에 비중을 둔 데 비해, 저는 양자를 아우른 감이 있으므로 비판의 소지가 적었습니다.

강민우: '궁리 공부'는 외적 수양법으로서 널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함양 공부'는 마음이 작용을 시작하기 이전의 고요한 상태에서 본성을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이가 지식 공부를 중시한 것이라면 성혼은 마음(수양) 공부를 중시한 것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다정하기 이를 데 없지만, 사사로운 인정과 의리를 확실히 구분합니다. 이이는 저를 깊이 이해하고 동정한 나머지, 저의 부친 송사련이 죽었을 때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여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까지 써줍니다. 그러나 성혼은 저와 우정을 맺고 있으면서도 송사련의 불의를 미워하던 터라, 이이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율곡전서』「어록 하」) 게다가 '대서모론(待庶母論)'에서도 성혼은 이이가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예를 그르쳤다"라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이이는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을 길러준 서모

(庶母: 아버지의 첩)를 극진히 모십니다. 가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맏형수보다 윗자리에 서도록 합니다. 본처와 첩의 구별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기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민우: 당시로서는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겠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가 서모의 위치를 맏며느리보다 높인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마침내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에 저는 명분을 지키는 것이 주가 되는 예의 준거에 따라, 본처에게 맞서는 혐의가 있다고 이이를 비판합니다. 명분에 따른 적서(嫡庶)의 분별에 중점을 두고 예법의 원칙론을 고수한 것입니다. 제가 서얼 출신이면서도 적서의 구별을 고수하려 한 것은 종법 질서의 확립에 대한 소신 때문입니다.

강민우: 이이는 학문을 하면서 독자적인 견해를 다수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성혼과 선생님이 비판했다지요.

송익필: 저술보다 함양을 중시했던 우리가 이이에게 비판 받는 것은 주로 출처 문제 때문입니다. 성혼과 저는 이이가 저술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헌적 근거보다도 자신의 견해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혼은 저에게 부탁하여 이이의 저술에 대해 비판해 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강민우: 『격몽요결』·『소학집주』·『순언』 등 이이의 주요 저술들이 거론되었겠군요.

송익필: 성혼은 『격몽요결』을 간행한다는 말을 듣고, 이이에게 "속례(俗禮)와 관련된 부분은 불만이 많으며, 필요 없는 글자를 지워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자제들에게나 보도록 할 것이고, 널리 알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비판합니다. 또 『소학집주』의 간행 소식을 접하고는 "『격몽요결』처럼 서둘러 간행하지 말고 충분히 상의한 뒤 펴낼 것이며, 수집한 역대 주석에 미진한 곳이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순언』에 대한 비판은 한층 더 정도가 심합니다. "이이가 직접 엮은 『순언』 한 질을 보았다.……기이한 것을 굴복시키고자 하면서도 도리어 그와 같았다. 또 주석은 견강부회하다"라고 비판합니다.

강민우: 이에 이이는 "『격몽요결의 잘못을 지적해준 것은 매우 수긍이 가는 곳이 있으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소학』도 마땅히 형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하여, 성호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도 합니다.

송익필: 이이는 경세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는 선조 임금을 잘 보필하면 하나라·은나라·주나라 삼대(三代)와 같은 이상적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이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임한 데에는 벼슬이나 명성이 높지 못한 집안 배경이 어느 정도 작용한 듯합니다. 이에 비해 성혼은 도통의 정맥을 이은 훌륭한 가문으로, 집안 선조인 성삼문이 화를 당하거나 조광조의 수난을 거울로 삼아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삼가고 초야에서 수양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깁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출신 성분이 일생토록 멍에가 되었지만, 경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각별하였다지요.

송익필: 저는 자신의 이상을, 이이를 통해 달성이라도 하려는 듯, 이이에게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선유 가운데 조광조의 경세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추앙합니다. 또 그의 지치(至治) 이념을 계승하여 삼대의 이상 정치를 당대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이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 큽니다. 저는 이이가 대제학이 되었을 때 편지를 보내어 삼대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이이의 시국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아낌없이 비판하였다지요.

송익필: 학문적 성숙이 요구될 때도 벼슬에서 물러나 수양을 더 쌓으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남들에게는 주제넘은 처사로 비치기도 했겠지만, 저는 물론 이이나 성혼도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이가 정치적으로 곤경에 몰렸을 때, 제가 이이와 성혼의 배후에서 일을 조종하는 자로 지목을 받아 동인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이이가 정치적으로 여당의 위치에 있었다면, 성혼과 송익필 선생은 야당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가 경세에 대한 의지가 강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지지나 않을지 근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이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말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이가 성혼의 말보다도 제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이의 현실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이가 경세에 대한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강민우: 성혼도 이이를 꾸짖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요.

송익필: 성혼도 이이의 경세에 대한 의지와 식견을 인정합니다. 때로 이이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때로 조언도 하며 비판도 합니다. 이이가 재상의 물망에 올랐을 때는 저에게 부탁하여 "이이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가 시류를 따르는 재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학인 장유(張維)는 "선배들이 서로 일깨워 주는 도리를 접하노라면 정말 존경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지요.

강민우: 이이는 현실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는 데 비해, 성혼은 대체로 이와 상반된 인식을 했던 것이군요.

송익필: 성혼은 이이가 때를 보아 일을 추진하지 않고 무모하게 서두른다고 비판합니다. "이이는 변통을 좋아하는 것이 큰 병통이다." "지금의 비방하는 말은 이이 자신과 외부 사람이 그 잘못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 이이가 비판받는 이유가 변통을 좋아하고 무

모하게 일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이는 “성혼은 나에게 계속해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 고집이 너무 센 것 같다. 수많은 백성이 물이 새는 빈 배에 있으며, 그들을 구제할 책임은 실로 나에게 있다”(『구봉집』 권5)라고 하여, 성혼이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강민우: 성혼은 선생님에 대해서도 불만의 뜻이 컸다지요.

송익필: 저는 성혼의 경륜과 학문을 무척 아끼고 존중합니다. 제가 동인들에 의해 거의 집안이 망하는 화를 당하였을 때 돈을 모아 천민의 신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저에 대해 불만의 뜻이 없지 않았는데, 예컨대 포부가 크고 성격이 소탈하여 세세한 것에 소홀한 점이라든지, 남을 이기려는 승부욕이 있는 점, 필요 이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점 등은 성혼이 불만으로 여긴 것들입니다.

강민우: 반대로 이이와 송익필 선생도 성혼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지요.

송익필: 이이와 저는 학문과 경세의 역량을 갖춘 성혼이 “출처 진퇴는 오직 의(義)에 있다”라고 하면서, 초야에 머물면서 홀로 그 몸을 보존하는 것을 의리로 여기는 소극적인 태도를 못마땅해 합니다. 이이는 성혼을 정계로 불러내기 위해 자신의 봉록을 타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도 시국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출사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성혼이 초야의 선비로 묻혀 지내기엔 너무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이나 숙고하고도 출사에 대한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성혼에게 “성혼은 전에 없는 특수한 예우를 받았음에도 안일만을 도모하십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앞일을 예단하지 마시라”고 충고합니다.

강민우: 그렇지만 동서 당쟁이 고조되던 1583년에는 “시국 상황을 생각할 때 출사하여도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될 때 이이와 같이 될까 걱정이다. 오늘날 성혼만이 절개를 온전히 한 흠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출사를 만류한 적도 있다지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성혼은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는 것’을 의리로 삼아 산림에 은거하면서 몸을 보존하는 철학을 생활화합니다. 이는 그의 시국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현실은 동서 당쟁으로 그 몸을 보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혼의 판단입니다. 성혼은 학문상으로나 건강상으로 “나 자신도 돌볼 겨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이이는 “성혼은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인재로 다시는 의리를 구실로 도망칠 수 없지만, 여전히 물러나 웅크릴 계책만 품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강민우: 그런 생각은 송익필 선생도 마찬가지였죠. 선조의 부름을 받은 성혼이 “초야에 묻힌 사람은 언제나 물러나는 것이 의리이다. 이때 와서 갑자기 정사를 논하는 것은 처신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남의 비방을 막는 방법은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죠.